

## 현내면 정치망어구 건조장 사업 ‘암초’

화곡리 주민들, “화곡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 반대 ... 고성군 “조만간 설명회 개최해 설득”

### 실시설계용역 · 군부대협의 동안 주민들에게 ‘쉬쉬’

고성군이 현내면 화곡리 산 20번지 일대 2만2,000㎡의 부지에 현내면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본보 제33호, 10월10일자 보도) 가운데, 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곡리 주민들이 지난 2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화곡리 최춘호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1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1시30분 마을회관 앞 정자에 모여 “주민들과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우리 마을에는 정치망어구 건조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건조장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건조장 조성 부지 인근에 상수원인 배봉천이 있어서 식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 △그물 건조과정에서 배봉천에 염분이 섞여 인근 눈에 염분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특히 “화곡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며 “어떻게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춘호 이장은 “군청 담당자가 밤 8시에 집으로 찾아와서 건조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나는 당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런데도 마치 내가 찬성한 것처럼 알려져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은 지난 8월 현내면 정치망어구 건조장을 화곡리에 짓

기로 하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군부대와 협의까지 완료했다. 또 인허가 과정까지 대부분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착공해 올해 내로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화곡리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성신문을 보고 나서야 우리 마을에 건조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주민들은 또 “다른 마을에 사



현내면 화곡리 최춘호 이장 등 마을주민들이 지난 28일 마을회관 앞 정자에 모여 정치망어구 건조장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는 주민들과 서울에 사는 출향인들로부터 ‘너희 마을에 건조장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말을 듣고 알게 된 경우도 있다’며 “농사만 짓고 산다고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정치망어구 건조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고성군의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주민들이 추수철이라 바쁘다고 해서 설명회를 못한 것이며, 이제 추수도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최북단 대진항 ‘도치’ 풍년

고성군수협 위판량 전년 대비 8% 증가 ... 도치 두루치기 등 일품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에서 최근 도치가 많이 잡혀 풍년을 이루고 있다.

고성군수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도치어획량은 95,167kg으로 작년 어획량 88,199kg에 비해 6,968kg이 늘어나 8%

가량 증가했다. 또 어획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증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현재 마리당 위판가는 암놈이 5~6천원, 수놈이 3~5천원이다.

겨울철이 제철인 도치는 살이 두툼하고 알이 많아 산란기에 먹으면 더욱 맛있다.

심통맛게 생겨 ‘심통이’라고도 불리는 도치는 생김새와는 달리 질기지 않으며 쫄깃하고,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인기가 좋다.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 꺼낸 후 한번 더 데친 도치숙회, 알을 소금에 재워뒀다가 찢 알찜, 묵은지 위에 도치를 얹어 조리낸 두루치기와 도치 알탕 등으로 많이 조리된다.

원광연 기자



어민들이 지난 24일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도치를 상자에 담고 있다.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제13회 고성명태축제 화보 8~9면**